

상반기 모바일게임 빅매치

넥슨

성인용 표방 카이저 vs 서버 밖 연계 가능

웹젠

넥슨 '카이저'

풀 3D그래픽·1대1 아이템거래 가능

'리니지'와 '검은사막'이 주름잡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상반기 눈에 띄는 대작이 출격한다. 올 상반기 리니지와 검은사막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낸 게임이 드문 만큼 이들을 따라잡을 신작이 나올지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카이저(KAISER)'와 웹젠의 '뮤 오리진2'이 이날 정면 대결에 나선다. 뮤오리진2는 유명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탄탄한 이용자층을 확보했다면, 카이저는 새로운 IP로 대규모중점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에 신선함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사전 예약 120만명을 돌파한 카이저는 이날 사전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이저는 인기 PC게임 '리니지2'의 개발을 맡았던 채기명 패스파인더에이티브 PD가 주축이 돼 지난 3년간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작한 게임이다.



넥슨 카이저-LG G7 씽큐 체험존 이미지.



'뮤 오리진2' 대표 이미지.

게임 슬로건은 '세상에 없던 R등급 모바일 MMORPG'다. 부, 명예, 권력을 키워드로 1대1 개인 거래 등 성인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의미가 담겼다. R등급은 해외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뜻한다. 어른들을 위한 게임인 셈이다.

'1대1 거래', '장원 쟁탈전' 등의 요소와 풀 3D 그래픽을 모바일에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1대1 아이템 거래 기능은 2000년대 PC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처음 모바일게임

에 도입했다.

온라인 게임 강자인 넥슨은 모바일 게임 최강자로 불리는 넷마블 등과 비교해 눈에 띄는 모바일 게임이 드물었다. 최근에는 '다크어벤저3', '엑스'에 이어 '오버히트' 등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올해 1·4분기 매출 중 넥슨의 모바일게임 비중은 16%에 불과해 신작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같은 날 웹젠이 동시에 출시하는 뮤 오리진2는 2015년 출시된 '뮤 오리진'의 후속작으로, 웹젠의 대표 IP로 꼽힌다. 전

작인 뮤 오리진은 MMORPG 중에 최초로 출시와 함께 애플마켓 매출 및 인기순위 1위에 올라 모바일 MMORPG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에도 누적 게임 다운로드 650만건을 돌파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웹젠의 지난 1·4분기 실적을 이끈 것은 '뮤' IP다. 뮤 IP를 활용한 게임 매출액은 43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9%를 차지한다. 웹젠의 경우 신규 성장 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웹젠 '뮤 오리진2'

서버 밖 게임공간 구현·협력콘텐츠

후속작인 뮤 오리진2는 MMORPG의 특징인 성장과 협력, 대립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특히 모바일 MMORPG에서는 처음으로 활동 서버 밖으로 게임 공간을 넓힌 '어비스'를 구현했다. 이용자들은 독립된 공간인 어비스를 왕복해 다른 서버의 이용자와 협력하거나 대결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기적작성'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된 뮤 오리진2는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웹젠 관계자는 "지난달 마무리된 뮤 오리진2 비공개테스트의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콘텐츠 간의 끊임없는 순환구조와 서버안정성, 사용자환경(UI) 등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겼다"며 "3일 기준 사전예약 참가자는 165만명을 넘겼다"고 말했다.

/김남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美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야기”

이주열 한은총재 통화정책 컨퍼런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당시 미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서 신흥시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됐다”며 “향후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이 같은 불안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축발작은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을 통해 신흥국 통화 가치 및 주가, 채권 등이 급락한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예견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의결문을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금리 조정 시 1순위 고려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미 금리 결정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12~13일(현지시

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6월 위기설’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통화 가치 급락 등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지난달 들어 21.1% 하락했고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있다. 터키 역시 리라화 가치가 지난달 한 달 새 12.6%나 급락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0)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규모 자산매입이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조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연금사회주의’ 우려 고개

62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시장에서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며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홍역’을 겪은 바 있는 국민연금은 올 들어 현대차 합병,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해 시장 혼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막강해진 영향력을 두고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부재(不在)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만 무려 131조원(올 1분기 말 기준)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투자 자료에 따르면 5% 이상 지분 보유 국내 기업은 276개사로 전기·전자부터 통신·화학·유통·금융·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9.9%, 현대차 8.4%, 네이버 10.8%, LG화학 9.1%, 신한지주 9.6% 등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 또는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이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 국민연금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주주권 적극 행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공개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보유사〉

구분	보유지분
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9.9%
현대차	8.4%
네이버	10.8%
LG화학	9.1%
신한지주	9.6%

/자료=국민연금

서한 발송 및 대표이사과 임원 등의 경영진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의결권 찬반 표시, 배당 확대 요구 등 제한적인 참여를 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고려해 주주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역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달 도입을 앞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공개활동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개서한 발송,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위임장 체결, 주주대표 소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기업 경영 자율성 훼손… ‘연금사회주의’ 우려”

다만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행보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일괄 개입에 나설 경우 경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정부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사태와 최근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안 등을 보면 국내 기업이 이미 국민연금이 종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민연금 CIO의 공백 장기화는 국민연금의 현재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지난 4월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가 3명의 후보를 CIO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지 못하면서 일부 재공모 가능성 등 뒷말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보다 면밀한 검증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본부 전주 이전 등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BOK)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은